

'860억의 사나이' 김민재... 뮌헨으로 가나

유럽 언론 "메디컬 테스트 받은 뒤 바이아웃 실행" 내일 논산훈련소 퇴소... 곧장 독일로 출국할 듯

논산 육군훈련소에서 기초 군사훈련을 받는 '통곡의 벽' 김민재가 4주간의 훈련을 받은 뒤 퇴소하면 독일 분데스리가의 '명문' 바이에른 뮌헨의 메디컬 테스트를 받고 곧바로 입단 절차를 밟을 전망이다. 김민재는 2018년 제18회 자카르타 팔렘방 아시안경기대회 금메달리스트로 병역 특례 혜택을 받았다.

유럽 이적전문 파브리치오 로마노 기자는 4일(한국시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김민재가 뮌헨의 메디컬 테스트를 받을 예정이다. 뮌헨은 (메디컬 테스트가 끝나면) 곧바로 바이아웃(최소 이적료) 조항을 발동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다만 로마노 기자는 메디컬 테스트가 '수요일'에 예정됐다고 전했지만 5일은 퇴소 하루 전날이라 불가능할 날짜다.

지난달 초 군사훈련을 위해 귀국했던 김민재는 6일 육군논산훈련소에서 퇴소한 뒤 7일쯤 독일로 출국할 전망이다. 이에 따라 김민재의 메디컬 테스트 일정도 이번 주말에 끝난 뒤 입단 발표 역시 다음주 중반에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김민재의 바이아웃 조항은 15일까지 실행 가능해서 메디컬 테스트가 끝나면 이적 절차가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김민재는 이번 유럽 이적 시장에서 뜨거운 관심을 받는 수비수로 손꼽힌다.

지난해 여름 튀르키예리그 페네르바체 SK에서 이탈리아 세리에A 나폴리로 이적한 뒤 주전 센터백 자리를 거머쥐고 팀이 33년 만에 세리에A 정상에 오르는 데 큰 힘을 보탤다. 김민재는 2022-23시즌이 끝난 뒤 세리에A 최우수 수비수로 뽑히며 몸값을 엄청나게 끌어올렸다.

이적 전문매체 트랜스퍼 마르크트에 따르면 지난 3월 김민재의 시장가치는 5000만 유로로 평가받다가 지난달 6000만 유로(약 860억 원)로 올랐다. 이미 손흥민(토트넘·5000만 유로)을 넘어 유럽에서 활약하는 아시아 선수 최고 몸값을 기록했다.

뮌헨이 가장 적극적으로 김민재의 영입에 나섰고 2028년까지 5년간 계약이 임박했다는 외신 보도도 나오면서 김민재의 분데스리가 입성도 점점 가까워지는 분위기다.

연합뉴스/박병현 기자 bhpark@skyedaily.com



이탈리아 프로축구 세리에A 최우수 수비수를 받은 김민재(오른쪽)가 프랑크푸르트의 라파엘 산토스 보레와 공을 두고 다투고 있다.

Oliver Weiker/dpa-연합뉴스

커쇼 어깨 통증에 '다저스 비상'... 올스타전 등판 무산

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그(MLB) 내셔널리그 다승 1위를 질주하며 모처럼 에이스다운 면모를 뽐내던 좌완 클레이튼 커쇼(로스앤젤레스 다저스)가 부상에 발목이 잡혔다.

다저스 구단은 4일(한국시간) 왼쪽 어깨 통증을 호소하는 커쇼를 15일짜리 부상자 명단(IL)에 보냈다고 발표했다.

커쇼는 이번 시즌 16경기에 선발 등판해 10승 4패 95와3분10이닝 평균자책점 2.55로 흔들리던 다저스 마운드를 단단하게 지탱하고 있었다.

최근 등판인 지난달 28일에는 콜로라도 주 덴버 고지대에 자리해 '투수의 무덤'이라 불리는 쿠어스 필드 등판에서 콜로라도 로키스를 상대로 6이닝 1피안타 무실점으로 페투를 펼치기도 했다.

LA 구단 15일짜리 부상자 명단에 올라



부상자 명단에 오른 클레이튼 커쇼(가운데)가 4일(한국시간) 취재진과 인터뷰하고 있다.

AFP-연합뉴스

잡은 부상으로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 연속 규정이닝을 채우지 못했던 그는 올해 전반기 활약으로 부활을 선언했지만 다시 부상에 발목이 잡혔다.

이에 따라 12일 워싱턴주 시애틀 T모바일 파크에서 열릴 MLB 올스타전 역시 출전이 어려워졌다. 통산 10번째 올스타로 선정된 커쇼는 올스타전 내셔널리그 선발 등판 후보 가운데 한 명이었다.

다행히 현재까지 큰 부상이 아닌 것으로 보인다. 커쇼는 현지 취재진과 인터뷰에서 "후반기 시작과 함께 돌아오겠다. 올스타전 등판이 무산돼 아쉽지만 가족들과 시간을 보낼 것이다. 장남 찰리가 아빠가 올스타전에서 던지는 걸 보지 못해 아쉬워한다"고 말했다.

김영준 기자 mjkim@skyedaily.com

'리버풀 전설' 제라드 사우디행

알에티파크 감독 2년 계약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EPL)의 명문클럽인 리버풀의 '레전드' 스티븐 제라드(43살)가 사우디아라비아 프로축구 리그 알에티파크의 지휘봉을 잡는다.

영국 BBC는 4일(한국시간) "제라드가 사우디아라비아 알에티파크의 감독으로 선임됐다. 계약 기간은 2년"이라고 보도했다. 알에티파크의 칼리드 알다발 회장은 "제라드의 합류는 의심할 여지 없이 우리 리그에 비약적인 발전을 가져올 것"이라며 환영했다. 알에티파크는 지난 시즌 사우디아라비아 리그에서 16개 팀 중 7위를 차지했다.

제라드 감독은 선수로 데뷔한 1998년부터 2015년까지 17년간 잉글랜드 리



버풀에서만 활약한 '레전드'로 EPL 통산 504경기에서 120골 92도움을 기록했다.

이후 미국프로축구(MLS) LA 갤럭시에서 두 시즌을 보낸 뒤 선수 생활을 끝내고 지도자의 길을 걸었다.

2017년부터 리버풀 18세 이하(U-18) 팀을 지휘한 그는 2018년 레인저스(스코틀랜드) 감독으로 부임했고 2020~21시즌에는 레인저스의 리그 무패 우승을 이끌었다. 레인저서의 무패 우승을 발판삼아 2021년 11월 EPL 애스턴 빌라 사령탑에 올랐던 제라드 감독은 지난해 10월 성적 부진으로 지휘봉을 내려놓았다.

박병현 기자 bhpark@skyedaily.com

BEYOND GOLF

세계 최대 드라이버 스위트스팟 영역 75mm
세계 최대 드라이버 페이스 면적 5040mm²

550cc의 헤드로 '똑바로' 더 멀리 날린다.

골프클럽 역사상 최대의 스위트스팟으로 타사의 고반발을 초월하는 성능

한계를 넘어선 *세계 최대 체적의 550cc 드라이버

- 반발계수 C.O.R 0.92의 극초고반발 / 동일 반발계수 기준 세계에서 가장 안정성 높은 견고한 헤드(35m/s의 타구 2,000번 이상 견딜)
- 현존하는 모든 고반발 드라이버 중 최대의 헤드체적인 550cc를 실현하여 타사 드라이버 대비 훨씬 더 큰 관용성과 긴 비거리를 실현
- 골프클럽 사상 가장 넓은 페이스/스위트스팟 넓이를 통해 타사의 고반발 클럽 대비 훨씬 더 안정적으로 똑바로 쏘는 직선상의 타구를 구현

New

신제품

비욘드 V550 드라이버

시타 | 상담문의 **1800-6007**